

Ⅰ 컴퓨터 文盲

항상 두뇌가 명석하거나 정확한 사람을 일컬어 '컴퓨터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컴퓨터는 틀림없긴 하지만 영리하다거나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충직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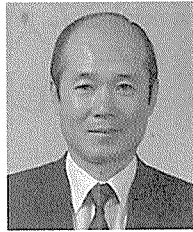
더욱이 컴퓨터는 말과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컴퓨터처리과정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입력" 즉 처리되어질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나 언어를 변형없이 컴퓨터가 이해해 준다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건만 그렇지 못하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주어야 한다.

초기에는 펀치카드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일정규격의 지면위의 약정된 위치에 구멍을 뚫어 입력기에 투입하면 전류의 통과여부에 따라 해당문자로 전환하여 자료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카드라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KEY IN과 동시에 해당 문자 CODE로 변환되어 자기테이프나 디스크에 수록하거나 처리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키엔트리 방식이 대량 입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일보하여 한자한글의 手書문자까지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기기들이 실용화단계에 있다. 음성인식기술도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金學九

청호컴퓨터(주) 부사장

그러나 일련의 방법들이 너무 엄격한 규격과 제약이 따르며 상대적으로 誤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억소자의 초소형화 고속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퍼지이론을 응용한 신경컴퓨터의 연구는 문자인식뿐만 아니고 컴퓨터의 인간로봇화로의 접근으로 보여진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나 문자를 수식없이 해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성취이며 인간과 컴퓨터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컴퓨터가 이해할 때 컴퓨터는 문맹의 오명을 벗게 될 것이다.